

믿음은 충성을 낳고 의심은 배신을 낳는다



김태산의 올림

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 남북합계국민연합 상임대표

북한에서 온 탈북인이 이런 글을 쓰자니 생각이 많다. 다 알겠지만 요즘 좌익운동을 하다가 우익으로 돌아선 김문수 선생이 노동부장관이 되고, 또 비슷한 길을 걸었던 장기표 선생이 별세하는 희(喜)와 애(哀)가 겹치는 일이 있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보수우파 속에서 김문수의 장관 취임과 장기표 선생에게 추서된 국민훈장을 놓고 말이 많기 때문이다. 동병상련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나도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로 이념 전환을 한 사람이다 보니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은 “한번 변절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또 변절한다” “나라를 반역하는 죄와 짓을 하던 자를 어떻게 믿고 장관까

지 시키냐” “죄와 노릇을 한 사람에게 국민훈장이 말이 되냐” “그러면 열심히 애국운동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등 옆에서 듣기도 거북한 불평불만을 쏟아낸다.

한마디로 김문수나 장기표처럼 사상 전향을 한 사람이 잘되는 것이 배가 아프고 애국을 한 자기에게는 아무 보상이 없어 배알이 풀린다는 질투심이 다분히 깔려 있다. 물론 본인들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옆에서 듣기에는 심본 그리 들린다.

물론 그런 사람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니다. 한번 변절했던 자가 다시 변절한 사례도 있다. 또 이 김태산이처럼 이념 전향을 한 사람들이 ‘나는 진실로 전향을 했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례서 “버선목처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참 답답한 노릇이다”는 말이 생긴 듯하다.

그러나 역사에는 한번 변절한 사람이 또 다시 변절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투항한 장수가 자신을 믿어 준 것에 감복하여 목숨을 걸고 큰 공을 세운 실례가 더 많다. 멀리 볼 것도 없다. 세계가 인정하는



9월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정례식장에 마련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빈소 영정 앞에 고인의 민주주의 발전 공로로 추서된 국민훈장이 놓여 있다.

대한민국을 살린 박정희 대통령도 사상 전향자다.

또 역사에는 전향한 적국의 장수를 벌하지 않고 대담하게 믿고 받아 준 명장과 명인이 많다. 북한의 김일성도 공산주의를 그렇게 증오하던 김구를 믿고 포섭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잖은가. 그래서 옛날부터 믿음은 충성을 낳고 의심은 배신을 낳는다는 유명한 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김문수나 장기표 같은 사람을 믿지 않고 의심부터 하는 사람은 오히려 적을 도와주고 애국을 분열시키는 또 다른 적이라고 본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나는 김문수-장기표를 만나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지난날 좌익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두 사

람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애국운동과 탈북인을 위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한국 정치 역사에 수천 명의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김문수 장관처럼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발의한 자가 있었는가. 또 장기표 선생처럼 병든 몸을 끌고 추운 겨울에 탈북인 강제 복송 반대와 탈북인 보호를 위해 1인 시위를 벌인 정치가가 있었는가.

만약에 그들이 가까워 전향을 했다면 정체를 더 깊이 숨기려고 더 많은 사람과 언론의 주목을 받을 그런 톱톡 튀는 반 좌파운동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도 관심 없는 탈북인 생존을 위한 투쟁 따위나 하며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이다.

기계도 아닌 인간에게 어찌 결함이 없겠는가. 특히 보수우파 진영은 사람을 의심하고 뒤를 캐는 방첩기관도 아니다. 그러나 우선 사람의 장점부터 보고 결함은 고쳐 주면서 애국 우파의 대의를 다져나갈 생각을 해야지 왜 인간을 의심하고 배척해서 애국진영을 분열시키는가.

사실 1국1당 독재 정당인 북한의 노동당이 이리저리는 않는다. 노동당은 결함을 범

한 사람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바로잡아서 힘을 합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 적의 편도 교양하여 공화국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당 대중운동의 기본 원칙이다.

한국에 와 보니 종북좌파들은 북한 노동당의 대중운동 원칙을 그대로 수용하여 대오를 철통같이 꾸리고 운영한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법률·언론·교육·종교·노동운동과 군대·공권력 모두를 좌파가 장악했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 구실을 해야 할 보수우파 중에는 자기 편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의심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보수우파의 단결을 망치는 자들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좌파들은 톱톡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보수는 서로 제가 잘났다며 뭉치지 못 해서 망한다”고 말은 잘하면서 뒤에서는 보수우파 진영을 파괴하는 또 다른 적이다.

진정한 보수우파라면 믿음은 충성과 단결을 낳고 의심은 배신과 분열을 자처한다면 대중운동의 진리를 명심하기 바란다.

‘이도류’ 오타니 이젠 ‘삼도류’라고 불려야 하나



스포츠 세상

박병현 취재본부장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전인미답의 50홈런·50도루를 기록한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게는 ‘이도류(二刀流)’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일본 검술에서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칼을 들고 행하는 검술을 뜻하지만 30살의 오타니는 프로 야구선수로서 투수와 타자 역할을 훌륭하게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수와 타자 가운데 한 쪽에만 매진해도 성공하기 힘든 MLB에서 두 역할 모두 최정상급 활약을 펼치는 그를 이제는 ‘삼도류’라고 불려야 할 판이다.

오타니는 홈런 타자는 발이 느리다는 속설을 멋지게 깨뜨리고 준족을 상징하는 도루에서도 시즌 50개를 넘어서는 신기원을 열었기 때문이다.

MLB에서 불멸의 기록은 사이 영의 통

산 최다 511승·조 디마지오의 56경기 연속 안타·스즈키 이치로(일본)의 한 시즌 262 안타·칼 립켄 주니어의 263경기 연속 출장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오타니의 ‘50홈런·50도루’도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투타 겸업을 하던 오타니는 올해 팔꿈치 수술 후 투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타격에만 집중하면서 숨어 있던 또 다른 무기인 도루가 빛을 발했다. 오타니가 미프로 야구 148년 역사상 처음으로 50홈런·50도루를 기록하자 미국이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완벽한 야구 선수”를 꿈꾸며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해 온 오타니였다. 야구 실력을 키우기 위한 포크볼 완성, 유연성 키우기 뿐 아니라 인성에도 신경 썼다. 감사·예의·배려·쓰레기 줍기 등을 통해 모범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오타니였다. 뛰어난 경기력에 훌륭한 인성을 갖춘 덕분에 국내에도 그의 팬이 적지 않다.

MLB 입성 후에도 쓰레기를 줍는 등 계획표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 화제를 모았다. 18세부터 42세까지 매년 이뤄야 할 목표표를 적어 넣은 계획표를 만든 오타니는 계획표대로 100% 실천할 수 없지만 어린

시절 목표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다.

오타니의 인성 형성에는 아버지와 오타니가 다니고등학교 사사키 히로시 감독의 가르침이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인 야구 선수로 뛰다가 부상으로 공장 근로자가 된 아버지와 베드민턴 선수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오타니는 어릴 적부터 땀 흘려 부른 덕이었다. 아버지는 운동을 잘하도록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는 강압적인 스타일이 아니었다. 경기 때마다 늘 전력을 다하라며 야구에 대한 태도를 일러 준 밥상머리 교육이 전부였다.

사사키 감독은 그에게 고교 시절 내내 야구부 소속 화장실 청소를 맡겼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가 없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을 배운 것은 이때였다. “최정상에 설 선수들은 하찮고 굵은 일을 해 봐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치고 던지는 것이 야구”라고 강조하는 오타니는 고교시절부터 투수로도 타자로도 뛰어났다. 오타니는 고교시절 이미 시속 160km의 강속구를 던졌고 타격에서도

발군의 재능을 보였다.

오타니는 2013년 일본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아 닛폰햄 파이터스를 거쳐 MLB에 입성한 뒤 한 번도 투타 겸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에 상륙해서도 많은 구단이 러브콜을 보냈지만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에 입단한 것도 투타 겸업 도전을 지원하겠다는 구단의 뜻 때문이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자신의 꿈인 투타 겸업 도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였다.

오타니가 50홈런·50도루의 대기록을 세운 건 단순히 우연은 아니다. 미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충분한 193cm의 신체 조건을 갖춘 오타니는 도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상대 투수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더그아웃에서 항상 태블릿 PC를 들고 홈플레이트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아 상대 투수의 투구 품과 견제 동작을 면밀히 살핀다. 그렇게 투수의 무게 중심과 머리 위치 변화까지 확인했기에 대기록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MLB 데뷔 첫 해인 2018년 투수로 4승2패, 타자로 22홈런 6타점을 올려 생애 한번 뿐인 신인상을 안은 데 이어 2021년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지난달 29일(한국시간)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에서 타격을 하고 있다.

타자로 타율 0.257 46홈런 100타점, 투수로 9승 2패 평균자책점 3.18을 기록하며 생애 첫 최우수선수(MVP)도 수상, 한층 농의

은 투타 겸업 솜씨를 뽐낸 오타니였다.


2023시즌을 마친 뒤 자유계약선수(FA)가 되면서 계약 규모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LA다저스와 10년·7억 달러(약 9362억 원)라는 초대형 계약을 이끌어내는 역사를 썼다. 역대 프로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였다. 5만 원권으로 쌓으면 그 높이가 국내 최고층 빌딩 잠실 롯데타워(555m)의 3배를 넘는 액수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FC 바르셀로나와 맺었던 6억7400만 달러를 뛰어넘는 최고의 몸값을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몸값도 50홈런·50도루를 기록한 오타니에게는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MLB 입성 후 일본프로야구 시절보다 더 큰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됐지만 오타니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겸손한 태도는 그대로였다. 오타니는 7일(한국시간) MLB 데뷔 7시즌 만에 처음 출전한 포스트시즌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1차전에서 3점포를 터뜨려 팀 승리를 이끄는 등 맹활약했다. ‘기록의 사나이’ 오타니가 가을 야구에서도 어떤 기록을 또 만들어 낼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오타니의 일거수 일투족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특허받은

신일 듀얼 자동칫솔



신일전자
공식스토어
바로가기

양방향 자동 회전 <DUPONT> 듀폰사 최고급 칫솔모